

도농 및 직업별 애완동물의 사육기술수준과 전망

김계웅 · 김석은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

Analysis of Raising Skill Level and Prospects on Pet Industry by Socio-Ecological Status Group

Kim, Gye-Woong · Kim, Seok-Eun

Dept. of Animal Resources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urve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obtain and apply the basic information on levels of raising skill, recognition of mutual infection between animal and human, field of skill training, registration of animal pedigree, mating places, difficulties of raising, channel of marketing, and prospects of raising by socio-ecological status. Data were randomly gathered from 713 peoples, who composed of 398 men and 315 women, from March to August, 2005. As the results,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at relatively "the level of breeding skill is middle(43.9%)". The average score for skill level is 1.81±0.79 when 4 points were used as a full mark. The recognition of mutual infection between human and animal is answered that "many respondents don't know very well(62.6%)". The questionnaire answered largely that "the field of raising skill training is trimming and grooming(29.2%)". The respondents recognized that "the pedigree registration of pet is not essential(52.7%)". The pet breeders answered that "the mating for reproduction was conducted mainly in pet shops(34.3%)". The breeders indicated mostly that "the difficulties of raising were technical skills of raising(53.5%)".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deal of marketing of animal was mainly achieved through neighbors and close relatives(42.8%)". The many questionnaires were recognized that "breeders have a good prospect for the pet industry in the future(51.5%)".

Key words : Breeders, Pet industry, Prospect, Raising skill, Socio-ecological status

1. 서론

최근에는 애견을 가족으로 분류하지 말고 가족의 한 일원으로 포함시켜 인간다운 공동체 인식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요구는 개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특히, 식용으로 생각하여 동물복지와 거리가 먼 도살을 통하여 동물을 학대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은 노령화 시대를 맞아 웰빙(well-being) 문화를 즐기려고 한껏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는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가족과 같이 반려동물로 생각하여 희로애락을 함께 즐기려고, 애완동물을 가족이 아닌 가족과 같이 취급해 달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개의 사육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약 2백 9십 4만 마리가 되며(농림부, 2004), 이 중 애완견이 90%

이상으로 날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은 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고양이와 같은 포유류이다. 그리고 오리, 닭, 십자매, 카나리아, 잉꼬와 같은 조류가 있으며, 종전에는 실험동물로만 키워왔던 햄스터, 몰모트, 마우스나 랫드까지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어 매우 다양한 동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애완동물을 키우면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사랑과 존중함을 배우게 되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케 한다. 신진국과 같이 노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애완동물은 노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로서 동반자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책임감까지 길러주는 좋은 교육적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강민수 등, 1998, 신남식, 2003a, 김계웅 등, 2003). 그리고 애완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친절함과 감정이입이 증가하고, 아동의 사회화를 촉진하고 정서적

Corresponding author : Kim, Seok-Eun

Tel : 041-330-1240

E-mail : sekim@kongju.ac.kr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자립의지가 생긴다고도 보고하였다(Henderson, 1997). 이러한 애완산업은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총 가구중 50% 이상이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IMF 시기에는 잠시 주춤하였다가 2000년 이후 급성장하여 총 가구중 15~20%의 가구에서 애완견을 사육하고 있는 추세이다. 애완동물 자체는 물론 구입·마용·치료·분만·장례와 관련한 수많은 신종 직업이 등장하면서 2003년 말 현재 약 1조 2천억원 이상의 시장규모로 고속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신남식, 2003b). 최근에는 애완동물 프로그램이 TV에서 방영되어 동물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동물행동(animal behavior)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마상진, 2004). 그리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면서 심오한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대학에서 애완동물과, 애완동물관리과, 애완동물미용관리과 등과 같은 애완동물 관련 학과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나 애완동물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애완견에서 *Helicobacter spp.*의 감염에 관한 연구에서 23.5%로 비교적 낮은 비율의 감염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균은 나선균으로 개는 물론 고양이, 치타, 돼지 등의 위점막에서 관찰되는 인수공통 감염원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종환 등, 2001).

유전학적으로는 한국 토종견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과 구조(Fujise 등, 1997, 하지홍 등, 1999), 토종견의 혈통확인 과 실험견의 계통보존시스템 개발 및 응용(이항 등, 2002)으로 각각 보고하였으며(이인아와 이춘길, 1996), 최근에는 「애완동물 기르기」의 교육 내재적 가치에 관한 연구로 한국실과교육학회에서도 발표한 바 있다(마상진, 2004). 애완견의 사료에 대해서는 애완견 식품을 위한 신기술(강민수 등, 1994)과 애완동물사료의 생산 현황과 생산기술(최운재, 2004)로 각각 보고한 바가 있으나, 도농 및 직업별 애완동물의 사육실태와 인지도에 관해서는 조사된 보고 자료는 거의 없어서 애완동물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시점에서 사육자나 소비자의 실태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본 조사는 성별, 도농별, 학력별, 그리고 직업별로 애완동물의 사육 실태와 전망에 관하여 설문을 통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장차 농촌발전가능성을 진단하여 애완동물산업의 생산 및 시장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II.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표 1. 조사대상의 성별·연령·학력 및 직업별 분포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	398	55.82	학력	중·고졸	534	74.89
	여	315	44.18		대졸이상	144	20.19
도농별	대도시	491	68.96		기타	35	4.91
	중소도시	105	14.75	직업	사업/자영업	60	8.42
	농촌	116	16.29		공무/회사원	46	6.45
			학생		590	82.74	
				기타	17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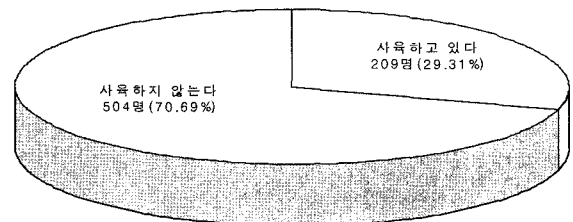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자의 애완동물 사육여부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성실하게 답한 713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성별, 도농별, 학력별 및 직업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조사항목으로는 애완동물 사육기술 수준, 인수공통전염병 인지도, 사육기술교육분야, 혈통등록 희망여부, 교배장소, 사육상의 애로사항, 분양채널, 전망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713명 중에서 209명(29.31%)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었다.

2. 조사방법 및 통계처리

조사항목은 다시 성별, 도농별, 학력별, 직업별 등으로 구분하여 무기명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토록 한 후 수집하고 조사항목별로 구분하여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사육기술 수준은 4단계로 「매우 높다」는 4점에서 「미흡하다」 1점을 각각 부여하여 산술평균을 구하였다. 그리고 설문 문항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애완동물의 사육기술수준

애완동물을 기르는 본인의 현재 사육관리기술을 묻는 전체 설문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709명중 311명(43.9%)가 「보통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80명(39.5%)은 「미흡하다」고 답하였으나, 「비교적 수준이 높다」고는

16.7%가 응답하여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관리기술수준을 더욱 높여 건강한 동물을 기르고 가정환경도 더욱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별간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는데, 기술수준이 미흡하다고 중·고졸자(42.2%), 대졸자(32.6%), 기타 학력자(26.5%)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매우 높다고 기타 학력자(8.8%), 중·고졸자(3.2%), 대졸자(2.8%)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통수준이거나 미흡하다(39.1~43.4%)고 응답함으로써 직업층간에 사육기술수준의 차이는 없는 경향을 보였다.

2.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지도

인수공통전염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설문결과는 표 3과 같다. 응답자 총 712명중 「잘 모른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62.6%), 그 다음으로는 「조금 안다」(34.3%), 그리고 「잘 안다」(3.1%)로 나타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는 잘 안다고 4.5%가 응답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1.3% 응답함으로써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별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전체평

균에서는 「잘 모른다」(62.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조금 안다(34.3%), 잘 안다(3.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하여 「조금 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중소도시, 농촌, 대도시 순으로 많았다.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도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중·고졸자는 잘 모른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67.2%), 잘 안다고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3.2%). 그러나 대졸자의 경우는 조금은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53.5%), 그 다음으로는 잘 모른다(43.1%), 잘 안다(3.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전염병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분석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모든 직업군에서 잘 모른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에 잘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하여 잘 아는 경우는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3. 사육기술교육 희망분야

애완동물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육관리 기술분야는 총 712명중 「트리밍과 그루밍」 분야를 가장 많이 교육을 희망하였으며(29.2%), 그 다음으로는 「전염병예방」(21.9%), 「사양기술」(18.5%), 「기타」(15.9%), 「번식육종기술」(14.5%)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 사육관리기술의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2. 사육기술 수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높다(4)	비교적 높다(3)	보통이다(2)	미흡하다(1)	계	평균 ²⁾ ± 표준편차	χ^2 -test
성	남	20(5.0)	54(13.6)	174(43.8)	149(37.5)	397(100.0)	1.86±0.83	$\chi^2 = 8.239$ df = 3 p < 0.05
	여	4(1.3)	40(12.8)	137(43.9)	131(42.0)	312(100.0)	1.73±0.73	
	계	24(3.4)	94(13.3)	311(43.9)	280(39.5)	709(100.0)	1.81±0.79	
도·농	대도시	15(3.1)	75(15.3)	216(44.1)	184(37.6)	490(100.0)	1.84±0.79	$\chi^2 = 9.007$ df = 6 N.S ¹⁾
	중소도시	3(2.9)	10(9.5)	49(46.7)	43(41.0)	105(100.0)	1.74±0.75	
	농 촌	6(5.3)	9(7.9)	46(40.4)	53(46.5)	114(100.0)	1.72±0.83	
	계	24(3.4)	94(13.3)	311(43.9)	280(39.5)	709(100.0)	1.81±0.79	
학 력	중·고졸	17(3.2)	65(12.2)	225(42.4)	224(42.2)	531(100.0)	1.76±0.79	$\chi^2 = 10.158$ df = 6 N.S ¹⁾
	대졸이상	4(2.8)	24(16.7)	69(47.9)	47(32.6)	144(100.0)	1.90±0.77	
	기 타	3(8.8)	5(14.7)	17(50.0)	9(26.5)	34(100.0)	2.06±0.87	
	계	24(3.4)	94(13.3)	311(43.9)	280(39.5)	709(100.0)	1.81±0.79	
직 업	사업/ 자영업	2(3.4)	8(13.8)	25(43.1)	23(39.7)	58(100.0)	1.81±0.80	$\chi^2 = 5.555$ df = 9 N.S ¹⁾
	공무원/회사원	2(4.3)	7(15.2)	19(41.3)	18(39.1)	46(100.0)	1.85±0.84	
	학 생	20(3.4)	78(13.3)	255(43.4)	235(40.0)	588(100.0)	1.80±0.79	
	기 타	0(0)	1(5.9)	12(70.6)	4(23.5)	17(100.0)	1.82±0.53	
	계	24(3.4)	94(13.3)	311(43.9)	280(39.5)	709(100.0)	1.81±0.79	

¹⁾ N.S = Not-Significant(p > 0.05).

²⁾ 평균은 「매우 높다」 4점, 「비교적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미흡하다」 1점을 부여한 산술 평균임.

표 3.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지도

(단위 : 명, %)

구 분		잘 안다	조금 안다	잘 모른다	계	χ^2 -test
성	남	18(4.5)	134(33.7)	246(61.8)	398(100.0)	$\chi^2 = 6.190$ df = 2 p < 0.05
	여	4(1.3)	110(35.0)	200(63.7)	314(100.0)	
	계	22(3.1)	244(34.3)	446(62.6)	712(100.0)	
도 · 농	대도시	17(3.5)	155(31.6)	319(65.0)	491(100.0)	$\chi^2 = 6.080$ df = 4 N.S ¹⁾
	중소도시	2(1.9)	45(42.9)	58(55.2)	105(100.0)	
	농 촌	3(2.6)	44(37.9)	69(59.5)	116(100.0)	
	계	22(3.1)	244(34.3)	446(62.6)	712(100.0)	
학 력	중 · 고졸	17(3.2)	158(29.6)	258(67.2)	533(100.0)	$\chi^2 = 32.056$ df = 4 p < 0.001
	대졸이상	5(3.5)	77(53.5)	62(43.1)	144(100.0)	
	기 타	0(0)	9(25.7)	26(74.3)	35(100.0)	
	계	22(3.1)	244(34.3)	446(62.6)	712(100.0)	
직 업	사업/ 자영업	4(6.8)	17(28.8)	38(64.4)	59(100.0)	$\chi^2 = 5.045$ df = 6 N.S ¹⁾
	공무원/회사원	1(2.2)	19(41.3)	26(56.5)	46(100.0)	
	학 생	16(2.7)	203(34.4)	371(62.9)	590(100.0)	
	기 타	1(5.9)	5(29.4)	11(64.7)	17(100.0)	
	계	22(3.1)	244(34.3)	446(62.6)	712(100.0)	

¹⁾ N.S = Not-Significant(P > 0.05).

이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도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어 남자의 경우는 트리밍과 그루밍 기술교육 받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22.9%), 그 밖의 다른 관리분야도 서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으나, 여자는 트리밍과 그루밍 관리기술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37.3%), 그 다음으로는 전염병예방(22.0%), 기타(17.2%), 사양기술(16.6%) 등의 순이고, 번식육종기술은 가장 낮게(7.0%) 희망하였다.

도농별로 분석한 결과는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는데, 대도시에서는 트리밍과 그루밍 기술을 가장 많이 교육 받기를 희망하였으나(34.0%),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전염병관리 기술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였다(각각 25.7%와 24.1%). 그 다음으로 농촌에서는 기타(21.6%) 및 사양기술(19.0%)을 원하고, 중소도시에서는 트리밍과 그루밍기술(21.9%)을 원하였다. 이는 농촌으로 갈수록 생산자 입장에서, 도시로 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의 응답으로 보여진다.

표 4. 기술교육 희망분야

(단위 : 명, %)

구 분		번식육종 분야기술	사양기술	트리밍& 그루밍기술	전염병 예방기술	기 타	계	χ^2 -test
성	남	81(20.4)	80(20.1)	91(22.9)	87(21.9)	59(14.8)	398(100.0)	$\chi^2 = 35.873$ df = 4 p < 0.001
	여	22(7.0)	52(16.6)	117(37.3)	69(22.0)	54(17.2)	314(100.0)	
	계	103(14.5)	132(18.5)	208(29.2)	156(21.9)	113(15.9)	712(100.0)	
도 · 농	대도시	63(12.8)	91(18.5)	167(34.0)	101(20.6)	69(14.1)	491(100.0)	$\chi^2 = 21.757$ df = 8 p < 0.01
	중소도시	17(16.2)	19(18.1)	23(21.9)	27(25.7)	19(18.1)	105(100.0)	
	농 촌	23(19.8)	22(19.0)	18(15.5)	28(24.1)	25(21.6)	116(100.0)	
	계	103(14.5)	132(18.5)	208(29.2)	156(21.9)	113(15.9)	712(100.0)	
학 력	중 · 고졸	68(12.8)	100(18.8)	164(30.8)	115(21.6)	86(16.1)	533(100.0)	$\chi^2 = 22.635$ df = 8 p < 0.01
	대졸이상	34(23.6)	26(18.1)	38(26.4)	28(19.4)	18(12.5)	144(100.0)	
	기 타	1(2.9)	6(17.1)	6(17.1)	13(37.1)	9(25.7)	35(100.0)	
	계	103(14.5)	132(18.5)	208(29.2)	156(21.9)	113(15.9)	712(100.0)	
직 업	사업/자영업	10(16.9)	12(20.3)	4(6.8)	13(22.0)	20(33.9)	59(100.0)	$\chi^2 = 47.729$ df = 12 p < 0.001
	공무원/회사원	9(19.6)	12(26.1)	7(15.2)	13(28.3)	5(10.9)	46(100.0)	
	학 생	79(13.4)	106(18.0)	197(33.4)	122(20.7)	86(14.6)	590(100.0)	
	기 타	5(2.5)	2(11.8)	0(0)	8(47.1)	2(11.8)	17(100.0)	
	계	103(14.5)	132(18.5)	208(29.2)	156(21.9)	113(15.9)	712(100.0)	

학력별 분석에서도 고도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중·고졸자와 대졸자 모두에서 트리밍과 그루밍 분야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중·고졸자는 전염병예방기술을 희망하였으나(21.6%), 대졸자는 번식육종 기술교육 받기를 더욱 희망하는 것(23.6%)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는데, 사업 및 자영업자는 기타 분야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나(33.9%), 공무원이나 회사원의 경우는 전염병예방기술(28.3%), 사양관리기술(26.1%), 번식육종기술(19.6%), 트리밍과 그루밍 기술(15.2%) 순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반면에 학생은 트리밍과 그루밍 기술분야를 가장 많이 원했으며(33.4%), 그 다음으로는 사양관리기술(18.0%), 기타분야(14.6%) 순으로 조사되었다.

4. 애완동물의 혈통등록

애완동물의 혈통 등록확인을 희망하십니까? 라는 설문에서는 총 712명중 「그저 그렇다」라고 가장 많은 375명(52.7%)이 응답하였고, 다음은 「희망한다」고 215명(30.2%)이 답하였으나, 「희망 하지 않는」 경우도 122명(17.1%)이나 되었다(표 5).

이를 성별로 본 결과에서는 고도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는 전체 평균치와 비슷하게 그저 그렇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는 남자(36.2%)가 여자(22.6%)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농별로 보면 생활시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농촌보다는 도시로 갈수록 애완동물의 혈통

등록을 희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별로 본 결과에서도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모든 연령층에서 등록하기는 「그저 그렇다」라고 전체 평균치와 비슷하게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는 중·고졸자는 많은(31.9%) 반면에 기타 학력 소지자는 「희망하지 않는」 경향(22.9%)을 보였다.

직업별 분석에서도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으나, 학생은 「등록을 희망하는」(31.4%) 경우가 많은 반면에, 사업이나 자영업자는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30.5%).

5. 애완동물의 교배장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완동물의 번식을 위한 교배(교미)장소는 「애완센터」가 가장 많고(34.3%), 그 다음은 「자가」(31.8%), 「동물병원」(28.8%) 순이었고, 「친지」에서 교배시키는 경우는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5.1%). 따라서 현재의 종견 등록확인서 등이 없는 한 혈통의 혼잡으로 인한 순종번식의 유지와 보존은 어려울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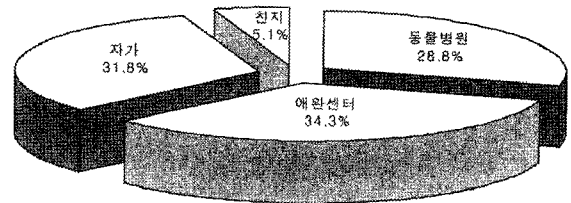


그림 2. 애완동물의 교배장소

표 5. 애완동물의 혈통등록

구 분		희망한다	그저 그렇다	희망않는다	계	χ ² -test
성	남	144(36.2)	197(49.5)	57(14.3)	398(100.0)	χ ² = 16.594 df = 2 p < 0.001
	여	71(22.6)	178(56.7)	65(20.7)	314(100.0)	
	계	215(30.2)	375(52.7)	122(17.1)	712(100.0)	
도·농	대도시	152(31.0)	262(53.4)	77(15.7)	491(100.0)	χ ² = 3.224 df = 4 N.S ¹⁾
	중소도시	33(31.4)	51(48.6)	21(20.0)	105(100.0)	
	농촌	30(25.9)	62(53.4)	24(20.7)	116(100.0)	
	계	215(30.2)	375(52.7)	122(17.1)	712(100.0)	
학력	중·고졸	170(31.9)	276(51.8)	87(16.3)	533(100.0)	χ ² = 5.603 df = 4 N.S ¹⁾
	대졸이상	40(27.8)	77(53.5)	27(18.8)	144(100.0)	
	기타	5(14.3)	22(62.9)	8(22.9)	35(100.0)	
	계	215(30.2)	375(52.7)	122(17.1)	712(100.0)	
직업	사업/자영업	13(22.0)	28(47.5)	18(30.5)	59(100.0)	χ ² = 11.083 df = 6 N.S ¹⁾
	공무원/회사원	14(30.4)	26(56.5)	6(13.0)	46(100.0)	
	학생	185(31.4)	309(52.4)	96(16.3)	590(100.0)	
	기타	3(17.6)	12(70.6)	2(11.8)	17(100.0)	
	계	215(30.2)	375(52.7)	122(17.1)	712(100.0)	

¹⁾ N.S = Not-Significant(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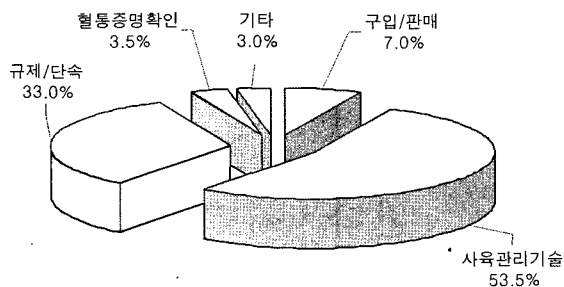


그림 3. 애완동물 사육시 애로사항

6. 애완동물 사육시 애로사항

애완동물을 사육할 때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은 그림 3과 같이 「사육관리기술」에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으며 (53.5%), 그 다음으로는 「규제와 단속」 (33.0%), 「구입과 판매」 (7.0%) 등 순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손쉽게 사육할 수 있는 관리기술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규제와 단속문제도 사육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7. 애완동물의 분양

애완동물을 구매할 때 분양채널을 묻는 설문 결과는 그림 4와 같이 「친구나 이웃」을 통하여 분양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42.8%), 그 다음은 애완센터(24.9%), 동물병원(14.9%), 인터넷(14.4%) 등의 순으로 분양되고 있었으나, 기타 방법으로 분양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애완동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애완센터나 동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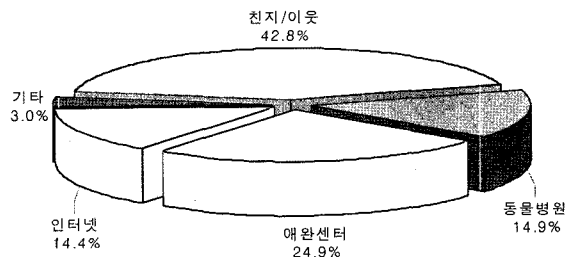


그림 4. 애완동물의 구매(분양)

원보다 주로 친구나 이웃을 통하여 분양되므로 체계적인 애완동물 등록 및 관리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

8. 애완동물의 사육전망

애완동물의 사육전망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6과 같다. 애완동물의 사육전망에 대한 설문에서는 총 711명중 366명(51.5%)이 「전망 있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전망 없거나 모르겠다」고 보는 사람은 80명(11.2%)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본 결과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남·여 모두 사육전망을 비슷하게 보고 있었다.

도농별로 보면 고도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는데, 전망이 있다고 중소도시, 대도시, 농촌에서 각각 55.2%, 53.7% 및 38.8%로 응답하여 도시에서는 전체 평균치와 비슷하게 절반이상이 전망을 밝게 보았으나, 농촌에서는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애완동물의 사육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망있다	보통이다	전망없다	모르겠다	계	χ^2 -test
성	남	208(52.4)	143(36.0)	16(4.0)	30(7.6)	397(100.0)	$\chi^2 = 1.237$ df = 3 N.S ¹⁾
	여	158(50.3)	122(38.9)	9(2.9)	25(8.0)	314(100.0)	
	계	366(51.5)	265(37.3)	25(3.5)	55(7.7)	711(100.0)	
도·농	대도시	263(53.7)	183(37.3)	18(3.7)	26(5.3)	490(100.0)	$\chi^2 = 25.344$ df = 6 p < 0.001
	중소도시	58(55.2)	35(33.3)	4(3.8)	8(7.6)	105(100.0)	
	농촌	45(38.8)	47(40.5)	3(2.6)	21(18.1)	116(100.0)	
	계	366(51.5)	265(37.3)	25(3.5)	55(7.7)	711(100.0)	
학력	중·고졸	280(52.5)	194(36.4)	21(3.9)	38(7.1)	533(100.0)	$\chi^2 = 22.621$ df = 6 p < 0.001
	대졸이상	79(54.9)	54(37.5)	2(1.4)	9(32.6)	144(100.0)	
	기타	7(20.6)	17(50.0)	2(5.9)	8(23.5)	34(100.0)	
	계	366(51.5)	265(37.3)	25(3.5)	55(7.7)	711(100.0)	
직업	사업/자영업	24(40.0)	21(35.0)	2(3.3)	13(21.7)	60(100.0)	$\chi^2 = 34.277$ df = 9 p < 0.001
	공무원/회사원	23(50.0)	20(43.5)	2(4.3)	1(2.2)	46(100.0)	
	학생	317(53.9)	212(36.1)	21(3.6)	38(6.5)	588(100.0)	
	기타	20(11.8)	12(70.6)	0(0)	3(17.6)	17(100.0)	
	계	366(51.5)	265(37.3)	25(3.5)	55(7.7)	711(100.0)	

¹⁾ N.S = Not-Significant(p > 0.05).

학력별 분석에서도 고도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중·고졸자(52.5%)와 대졸자(54.9%) 모두에서 사육전망이 밝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기타 학력소지자는 잘 모르겠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23.5%).

직업별로 보면 역시 통계적 유의성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육전망이 있다고 사업이나 자영업자는 40.0%가 응답하였고, 공무원이나 회사원은 50.0%, 그리고 학생층은 53.9%로 젊은 학생층에서 두드러지게 전망이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애완동물산업은 날로 더욱 전문성 있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조사 연구는 2005년 전국의 총 713명을 대상으로 성별, 도농별, 학력별 및 직업별로 구분하여 사육기술 수준, 인수공통전염병 인지도, 기술교육 희망분야, 혈통등록 희망여부, 교배장소, 사육상의 애로사항, 분양채널, 사육 전망 등을 조사·분석하여 장차 농촌발전 가능성을 진단하여 애완동물산업의 생산 및 시장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애완동물의 사육기술 수준은 「보통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43.9%), 4점 만점으로 산술평균한 점수는 1.81±0.79로 저조한 기술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성별로 보면 남·여 간에 통계적 유의차를 보여 남자가 여자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기술수준은 도농별, 학력별 및 직업별 간에 각각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2)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전체 인지도는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62.6%). 성별로는 남자(41.5%)가 여자(1.3%)보다 유의하게 더 잘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농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은 층에서 고도로 유의성 있게 인지도가 낮았다. 직업별로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술교육분야는 「트리밍과 그루밍」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29.2%). 성별로는 고도로 유의성 있게, 트리밍과 그루밍 분야를 남자(22.9%)보다는 여자(37.3%)가 더 희망하였다. 도농별로는 고도로 유의하게 대도시에서는 트리밍과 그루밍 분야(34.0%)를 희망하였으나,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전염병예방기술을 더욱 희망하였다(각각 25.7%와 24.1%). 학력별로는 고도로 유의하게 중·고졸자는 트리밍과 그루밍, 기타 학력자는 기타 다른 분야를 희망하

고, 직업별로는 고도로 유의성 있게 사업이나 자영업자는 기타분야, 학생은 트리밍과 그루밍분야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애완동물의 혈통등록의 희망 여부는 「그저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56.7%). 성별로 보면 고도로 유의성 있게 여자(22.6%)보다는 남자(36.2%)가 등록하기를 더욱 희망하였으나, 도농별, 학력별 및 직업별 층에서는 각각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직도 혈통등록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애완동물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주로 「애견센터」(34.3%), 자가(31.8%), 동물병원(28.8%) 등의 순으로 시키고 있으나, 순수혈통의 유지나 보존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배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애완동물 사육시 애로사항은 「사육관리기술」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53.5%), 그 다음으로는 규제와 단속(33.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육상 필요한 고급 기술습득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7) 애완동물의 구매채널은 「친지나 이웃」에게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42.8%), 그 다음으로는 애견센터(24.9%)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애완동물의 구매장소나 방법 등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애완동물의 사육전망은 「전망 있다」라고 과반수 이상이 응답하였다(51.5%). 성별로는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도농별로는 도시(55.2%), 학력별로는 대졸층(54.9%), 그리고 직업별로는 학생층(53.9%)에서 각각 고도로 유의성 있게 「전망 있다」라고 나타나 애완동물산업은 노령화시대와 함께 더욱 전문화되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1. 강민수, 강봉석, 강창원, 김상철, 박연진, 서국성, 이성호, 이순복, 이종완, 최광수, 최형송, 1998, 애완동물, 선진문화사, 50-126
2. 강창원, 1999, 애완견 식품의 기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책, 축산기술과 산업, 한국축산학회지 5(1) : 111-119
3. 김계웅, 고대환, 권혁추, 김석은, 김선균, 박홍양 등, 2003, 동물자원학개론-애완 및 관상동물 편-, 77-85
4. 농림부, 2004, 가축통계
5. 마상진, 2004, 애완동물기르기의 교육 내재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7(1) : 187-197
6. 박종환, 홍정주, 석승혁, 조선아, 박재학, 2001, 국내 애완견에서 Helicobacter spp.의 감염, 한국수의병리학회 5(1) : 5-8

7. 신남식, 2003a, Human-Animal Bond의 이해와 연구 방향, 한국애완동물학회, 창립심포지엄 : 25-29
8. 신남식, 2003b, 애완동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학술발표회, 39-44
9. 이인아, 이춘길, 1996, 개의 행동유전-고등동물 행동특질 유전의 연구전략, 한국 심리학회지 8(1) : 1-26
10. 이항, 윤정희, 민미숙, 강병택, 안용주, 최지혜, 2002, 토종견의 혈통확인과 실험견의 계통보존 시스템개발과 응용, 농림부
11. 최윤재, 1993, 애완동물사료의 생산현황과 생산기술, 한국영양사료학회 제5회 사료가공단기과정, 246-266
12. 하지홍, 이성은, 김경석, 1999, 한국 토종개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과 구조, 한국축산학회지 41(6) : 593-604
13. Fujise, H. Higa, K., Nakayama, T., Wada, K., Ochiai, H. and Tandabe, Y., 1997, Incidence of dogs possessing red blood cells with high K in Japan and East Asia, J. Vet. Med. Sci. 59(6) : 495-497
14. Henderson, 1997, Beetles, beechnut, and behavior : Using nature-based activities to develop social skill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